2002년 11월 열린 새신자예배 계획표

<도전! 리더십(여호수아 이야기)>

날짜	제목	본문	프로그램	설교자, 찬양팀
11/3	위험한 동거 (뜻하지 않은 속임수와의 위험한 동거 그래서 어떤 것은 처음부터 차단해야)	**수9:3~7**[3]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,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,[4]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. 그들은 낡은 부대와 해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,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, 길을 떠났다.[5]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,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,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.[6]그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,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. "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.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." [7]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. "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,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?"**14~16**[14]이스라엘 사람들은,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께 묻지도 않은 채, 그들이 가져 온 양식을 넘겨받았다.[15]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, 그들을 살려 준다는 조약을 맺고,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. [16]이스라엘 사람들은,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,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, 자기들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.	**어리석은 계약** - 드라마 "위험한 동거“ - 소프라노 이지은 “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”	한 홍 목사 Eve2mary 봉헌송: 색소폰 이광재 함께찬양: 찬양의 제사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
11/10	태양을 붙들어 놓고 싸우다 (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다)	**수10:7~14**[7]여호수아는 정예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,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.[8]그 때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. "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.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.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." [9]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,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다.[10]주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,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. 그는 벳호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,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.[11]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, 주께서,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,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, 많은 사람이 죽었다.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.[12]주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, 여호수아가 주께 아뢰었다.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. "태양아,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! 달아,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!"[13]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, 달이 멈추어 섰다. '야살의 책'에,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,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.[14]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 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,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. 주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.	**기적을 만드는 지도자** - 영상클립(하목사님 인터뷰) - 한상원, 유선식 목사 (여호와 우리 주여)	한홍 목사 온누리싱어즈 함께찬양: 오 신실하신주 (찬447,D) 선한 목자 (찬88, D)
11/17	다음 세대에게 주는 숙제 (90세가 넘는 여호수아 다음세대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? 해결 자체를 선물할 것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물할 것인가?)	**수13:1**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.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 "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,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**14:2~6**[2]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, 그들은 제비를 뽑아, 아홉 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.[3]모세가 이미 요단 강 동쪽에서, 두 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었으나,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.[4]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갈리었다.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할 여러 성읍과, 그들의 가축과 가축을 기를 목장 외에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. [5]이스라엘 자손은,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, 그 땅을 나누었다.[6]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,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. "당신은, 주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	**축복하는 지도자** - 실버성가대(2곡) - 온누리 세라핌 합창단(2곡)	한홍 목사 열린소리들 함께찬양: 예수사랑하심은 (찬411,D 후렴부터 천천히) 우리에게 향하신 (메150, D_>E)
11/24	축복은 개척하는 자의 것이다 (축복의 땅에서 완전히 적을 몰아내지 못하는 이스라엘-하나님이 복을 줘도 인간이 개척치 않으면 축복은 내 것이 되지 못한다)	**수17:16~18** [16]요셉 자손이 말하였다. "그 산간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, 그 골짜기 땅, 곧 벳스안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르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 병거가 있습니다." [17]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였다. "너희는 큰 무리요, 큰 세력도 가졌으니, 한 몫만 가질 일이 아니다. 산간지방도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. [18]산간지방이라 하더라도, 그 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여라. 가나안 사람들이 철 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, 너희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." **수18:1~4 [1]**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.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,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. [2]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일곱이나 남아 있었다. [3]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. "너희는 어느 때까지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느냐? [4]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을 선출하여라.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다.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,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,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다. **10절**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주 앞에서 제비를 뽑고,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.	**귀중한 유산상속** - 간증(주미향 집사) - 신준환 외	한홍 목사 알파와오메가 함께찬양: 축복송 (메222, F) 형제의 모습속에 (메285, F->G)